



11면

고 지정환 신부 제6주기 추모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음 3월 18일) 제372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도, 올해 첫 추경 편성한다

규모는 본예산 대비 증액
민생 현안 등 중심 편성
내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
올림픽 관련 조직 개편도
대선 공약 각 정당에 제안



전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영평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주요 도정 현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 실·국에서 제시한 미래 비전의 추진 현황 점검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제1회 추경 편성 등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밝혔다.

천 실장은 “실국별로 제시한 미래 비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 사업 110건에 대해 중앙부처와 기재부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는 김관영 도지사의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도의회 상임위원의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필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공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사는 선관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신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올해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계획도 소개됐다. 당초 5월 8일부터 예정되었던 도의회 회의는 대선 일정(6월 3일 확정)에 따라 28일부터 5월 7일까지로 앞당겨졌다.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734억원 증액된 수준으로, 국비 매칭 사업과 함께 올림픽 유치 대응, 민생 현안 등 긴급성과 필수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고 밝혔다.

천 실장은 “필수불가결한 신규 사업에 지양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에 재정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예산안은 15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은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 계획과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산불 피해 복구,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 추경 3대 분야에 부합하는 총 16건, 1,51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국회의원실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신영대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 중인 만큼 이 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도는 원 포인트 조직 개편을 통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1단 3과 10팀)과 함께 동물방역팀, 출향도민팀, 청년감사팀 등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3개팀을 신설, 총 31명을 증원한

다는 방침이다.

천 실장은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한해 효율적인 조직 증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공약과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메가비전 프로젝트 74건을 각 정당에 제안했으며, 이 중 약 65건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조찬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대선 공약 반영 현황 보고와 함께 제2 중앙경철학교 전북 유치, 대법관 개정 후속 조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요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영평 실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도민 알권리 충족과 정책 투명성을 위해 기자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겠다”며 “도정 전반에 걸쳐 도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 실천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14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천주교 유적을 방문해 현지실사를 진행한 가운데 유희태 군수가 설명을 하고 있다.

남계리 천주교 유적 ‘국가사적’ 지정 박차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 위원 구성 심사위원단, 현지심사 진행

완주군이 이서면 남계리 천주교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남계리 천주교 유적을 방문해 현지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국가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현장에서는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 원형보존 및 경관적 가치, 장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현장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 부위원장, 이순덕 완주군의 회 운영위원장, 이경애·서남용 군의원, 국가유산청 및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천주교 전주교구 관계자들도 참여해 지역의 관심과 응원을 보여줬다.

현장 심사는 장기제 완주군 학예연구사의 유적에 대한 국가사적으로서의 가치 보고와 심사위원들과의 질의응답 후 평가 회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완주 남계리 천주교 유적’이 위치한 초남이성지는 조선 후기에 천주교 박해 속에서도 지역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며 형성한 신앙공동체를 바탕으로 호남지역 천주교 확산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1791년 신해박해 당시 순교한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윤지충, 권상연,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순교한 윤지현의 유해와 백자사발 지석이 출토돼 국가사적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사적 지정 여부는 이번 현지심사 결과와 문화유산 위원회의 심의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국가사적을 통한 완주군 내 천주교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해 점차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오는 2027년 우리나라 개최가 확정된 ‘세계 청소년 대회’를 대비한 접근 도로 확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남계리 천주교유적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을 넘어, 박해와 희생 속에서도 신앙과 공동체 정신을 지켜낸 완주의 공동체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며,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역사교육의 장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열재복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5 육아 금융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신혼부부, 임신·난임 치료 중인 소상공인,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연 3%의 이차보전도 3년간 제공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

도내 소상공인 대상 ‘2025 육아 금융지원’ 본격 추진

저출생·인구감소 문제 대응 일환... 총 50억원 규모 지원

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된다. 총 4억원(도 2억원, 은행 2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약 5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뤄지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3년간 약 4억9,500만원 수준이다.

보증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인 소상공인 △임신 중이거나 난임 진단·치료 중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으로, 실제 출산·육아 상황에 놓인 다양한 가구

가 포함된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최대 2억원, 보증비율은 90%이며, 보증료율은 연 0.9%(임신 중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는 0.5%)로 낮췄다. 대출은 전북은행을 통해 제공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

면 방식과 함께 지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임신부 대표자는 비대면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7년 분할 또는 거치 없이 8년 분할 상환이며, 운전 자금 용도에 한해 적용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평균 5천만 원의 보증금액 기준 약 150개 가구, 약 600명(4인 가족 기준)의 지역 체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이 전북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금융정책”이라며,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모델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지원은 4월 셋째 주부터 신청을 개시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선운산농협의 웰빙지향 정직한 농민의 마음 브랜드입니다.

베리웰

최고의품질, 친절한 서비스 / 선운산농협 직접 운영

선운산농협동조합

상임이사: 안성민 사외이사: 진기영

비상임이사: 류채상 김용자 김완식 나삼주 서금자 최형곤 김범진 박수정 라종이 김대열 이종면 김대진

비상임감사: 이종호 김대환

조합장: 김기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지역에서만 자란 복분자 생과에 선운산농협의 정성을 더했습니다.

1544. 1589

복분자 1번지 선운산농협

<http://www.berrywell.co.kr>

■ 본점: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34
- 사무실: 063)562-9604
- 팩스: 063)562-9601
- 하나마트: 063)562-9602
- 영농자재판매장: 063)562-9603
- 농기계서비스센터: 063)564-9605

■ 아산지점: 아산면 녹두로 793
- 사무실: 562-5007
- 팩스: 562-5126
- 하나마트: 562-0955
- 하나마트: 562-5166
- 영농자재판매장: 564-9772

■ 공음지점: 공음면 공음길 55
- 사무실: 562-7888
- 팩스: 562-7890
- 하나마트: 564-6465
- 하나마트: 562-7889
- 영농자재판매장: 562-5556

■ 웰파크지점: 563-7255
- 팩스: 563-7256
■ 선운산지점: 561-3443
- 팩스: 561-4257
■ 복분자가공사업소: 564-5008
- 팩스: 564-5078

■ 농산물유통센터: 562-9644
- 팩스: 562-9654
■ 선운산농협주유소: 562-9600
- 팩스: 562-9609

■ 웰파크지점: 563-7255
- 팩스: 563-7256
■ 선운산지점: 561-3443
- 팩스: 561-4257
■ 복분자가공사업소: 564-5008
- 팩스: 564-5078